

서민경제 '엄동설한'

서민경제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로 가구주가 직장이 없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6%를 돌파했고 물가 상승 및 소비심리 악화로 영끌계수는 2004년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들어오는 돈은 넉넉치 않은 가운데 대출금리는 고공 비행을 거듭하면서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동안 억제돼왔던 공공요금도 택시요금 등을 필두로 들쭉이 고 있어 서민의 어려운 가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백수 가장' 269만가구 사상 첫 16% 넘어 생활 형편 최악 ... 영끌계수 4년만에 상승 대출금리 고공비행 ... 공공요금까지 들쭉

◇ 무직가구 비율 16% 돌파 - 사상 최고 =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면서 올해 3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 중 가구주가 뚜렷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무직(無職)가구의 비율은 16.13%로 전년 같은 기간(15.57%)에 비해 0.56%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무직가구의 비율은 2003년 13.61%, 2004년 13.74%, 2005년 14.16%, 2006년 14.69%, 2007년 15.57%로 계속 상승해오다 올해 3분기에는 마침내 16%를 넘어섰다. 무직가구의 수는 대략 지난해 3분기 255만6천 가구에서 올해 3분기 268만9천

천 가구로 1년새 13만3천 가구 가량 증가한 셈이다. 2003년과 비교하면 210만5천 가구에서 255만6천 가구로 5년 새 약 45만1천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무직가구는 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경우로, 이처럼 무직가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급속한 고령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먹고 살기 힘들다' - 영끌계수 4년 만에 상승 = 소득 정체,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3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의 비중(영끌계수)은 26.7%로 지



난해 같은 기간(26.11%)에 비해 0.59%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영끌계수(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는 하락하고 생활형편이 나빠지면 올라간다. 3분기 기준 전국가구의 영끌계수는 2003년 27.98%에서 2004년 28.81%로 상승한 뒤 2005년 27.27%,

2006년 26.27%, 2007년 26.11%로 3년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영끌계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소비를 줄였지만 필수품인 식료품비는 더 이상 줄이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대출이자 부담 점차 가중 = 실질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3분기 중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46만5천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5.5% 증가했지만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기준으로는 증가율 0%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라 서민들의 생계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7.79%로 전월보다 0.35%포인트 급등했다. 이는 2001년 6월의 7.89% 이후 최저치다. 올해 들어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3월 6.90%, 4월 6.91%, 5월 6.96%, 6월 7.02%, 7월 7.12%, 8월 7.31%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그동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왔던 공공요금 역시 줄줄이 오르고 있다. 이달 들어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됐다. 올 4월에 오른 연탄값도 이번 겨울부터 서민생활 부담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택시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될 것을 예상된다. /연합뉴스

급식비·방과후 수업료도 포함 의료비·카드정산은 13개월치 성형·보약비용 올해까지 적용

■ 올 연말정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바뀐다. 지난해까지 1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이 이뤄졌으나, 올해부터는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정산된다. 이는 특별공제 대상기간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대상기간이 직전년도 12월분에서 당해년도 11월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당해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로 변경됐다. 올해 의료비·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12개월이 아니라 13개월이 된다. 2007년 12월초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3개월 동안 쓴 금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다. ◇ 달라지는 것들 = 초·중·고교 자녀의 경우 방과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제외)와 학교 급식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세제관련 개정법안이 다음달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취학전 아동·초·중·고교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이런 것은 주의해야 = 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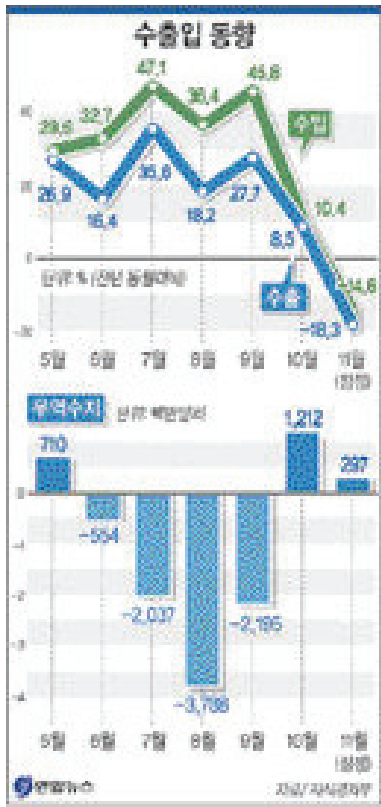
정산 때 몇 가지 사항들은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체육도장·수영장을 다녔을 경우 여기에 지급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는 유치원·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성형수술비용과 보약비용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즉 오는 12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이런 것은 주의해야 = 연말

정산 때 몇 가지 사항들은 꼭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취학전 아동이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체육도장·수영장을 다녔을 경우 여기에 지급한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는 유치원·초·중·고교에 해당하는 국외소재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성형수술비용과 보약비용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즉 오는 12월 말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비 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10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 이런 것은 주의해야 = 연말

11월 수출 급락 '쇼크'

전년 동월 대비 18% ↓ ... 7년만에 최대 폭

1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감소율은 2001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수입도 14.6% 급감하면서 무역수지는 2949천만 달러 흑자를 내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1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92억6천만 달러, 수입은 289억6천만 달러로 2억9천700만 달러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를 냈지만 1~11월 무역수지는 133억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대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84억5천만 달러 적자를 넘길 전망이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3% 급감해 미국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부진했던 2002년 2월(-17.5%)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감소율은 2001년 12월(-20.4%) 이후 가장 높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9월(293억 달러) 이후 14개월만에 200억 달러대로 주저앉았고 지난해 2월(26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직전 달인 10월보다 80억 달러 줄었으며 월간 최대였던 7월(409억 달러)보다는 10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급감한 13억 달러로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주력품목별 수출을 보면 선박(35%)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을 뿐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아예?

광주신세계 백화점 8층 크로스매장에서는 1일부터 미끄러지지 않고 악취 방지 기능이 있는 양털 신발과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크로스 신발은 구멍이 뚫린 부분에 작은 캐릭터도 달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가격은 3만9천900원부터 8만4천900원까지 다양하다. /연합뉴스

동국제강도 철근 가격 인하

t당 10만원 내려

현대제철에 이어 동국제강도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철근 가격을 인하했다. 동국제강은 1일 철근 제품 판매가격

을 이날 출하분부터 t당 10만원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mm 철근 제품의 가격은 92만1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인하된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주 원료인 철스

크랩 등의 가격이 하락했고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된 점 등을 감안해 가격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은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잇따라 철근 가격을 10~11만원 가량 인하했으며 현대제철은 최근 또 다시 철근 등 제품 가격을 t당 10~12만원 내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내년 항공요금 큰폭 인하

국제선 최대 12만원 가량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내년 초에는 항공요금도 큰폭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일 관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2월에 적용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단계를 올 10~11월 국제 항공유 평균가격을 반영해 현행 16단계에서 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편도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140달러에서 41달러로 99달러 내려간다. 중국과 동남아·서남아·중앙아시아·사이판은 62달러에서 18달러로 내려가고, 일본은 32달러에서 9달러로 23달러 내려간다. 부산·제주·후쿠오카 노선은 29달러에서 9달러로 20달러 인하된다. 올 4분기 ITAT 환율은 3분기 달러 당 1천25.90원보다 7.6% 오른 1천104.04원이다. 내년 초 적용하는 환율은 4분기 대비 10% 가량 오른 1천200원으로 산정하면 국제선 요금은 약 12만원 가량 내려간다. /연합뉴스

코스피 지수 닷새만에 하락

어제 17.45P 내려 ... 환율은 29원 떨어져

코스피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45포인트(1.62%) 내린 1,058.62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2.07포인트(0.19%) 내린 1,074.00으로 출발한 뒤 기관의 강한 프로그램 매도세로 낙폭을 키웠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0.72포인트(0.23%) 오른 308.20에 마감, 5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29.00 원 떨어진 1,44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5일째 하락했다. 수출업체들이 이월 매물을 내놓으면서 환율을 하락시켰고 외국인 투자 매수세를 나타낸 점도 심리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오래리웹서비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 안내데스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3	062-956-9405
한도에너지(주)	경리사무직원 구함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05	010-6624-1532
삼성출판사서광주교육본부	유치원 영어교사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2/05	062-373-5346
보람상조(주)	보람상조 남광주지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62-527-7142
마너넷(주)	사전촬영 가능 하신 디자이너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8	062-376-3220
(주)송일금속	금속청소 관련 기술자	고졸/경력무관	2000~2200	12/08	062-524-1554
뷰티코리아(주)	기획, 관리, 사무, 무역 경력자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12/09	062-384-9688
(주)진호	사무, 문서관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9	062-265-6250
(주)오픈테크놀로지	R&D 사업관리/서류작성 사원	대원졸/경력무관	2000~2200	12/10	062-975-7360
(주)도담건설	건축/기계설비 기능직(반장)/포크레인기사 경력직	고졸/경력3년	2400~2600	12/10	062-574-9401
(주)청수원	쇼핑몰 및 홈페이지관리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2/10	062-946-9595
대전종합건설(주)	토목공무 경력직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2/12	062-226-6600
한국정보보호인식(주)	09년 시스템네트워크 정보보호 엔지니어 과정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4	062-521-112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SK Telecom

같은학교, 학생끼리

통화로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